

치악산 경관자원 해설자료집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CHIAKSAN NATIONAL PARK OFFICE

목 차

I 치악산 개요	3
치악산 국립공원 개요	
II 치악 8경	5
<제1경> 비로봉 미륵불탑	
<제2경> 보은의 전설이 깃든 상원사	
<제3경> 구룡사와 구룡계곡	
<제4경> 식물의 보고 성황림	
<제5경> 사다리병창	
<제6경> 호국의 성지 영원산성	
<제7경> 태종대와 부곡계곡	
<제8경> 기암괴석 입석대	
III 지구별 주요 경관자원	10
1. 구룡지구	11
황장금표 구룡소 세림폭포 비로봉 천지봉 매화산	
수레너미재 배너미재	
2. 행구·황골지구	15
입석사 흥양리마애불좌상 신선대 보문사 동악단 관음사	
토끼봉 투구봉 삼봉 쥐너미재 원통재 곧은재	
3. 금대·성남·부곡지구	21
향로봉 영원사 금두산성지 해미산성지 아들바위 가리파재	
성남리석남사터 용마바위 변암 노구소	
IV 치악산 깃대종	26
물두꺼비 금강소나무	

I . 치약산 개요

치악산국립공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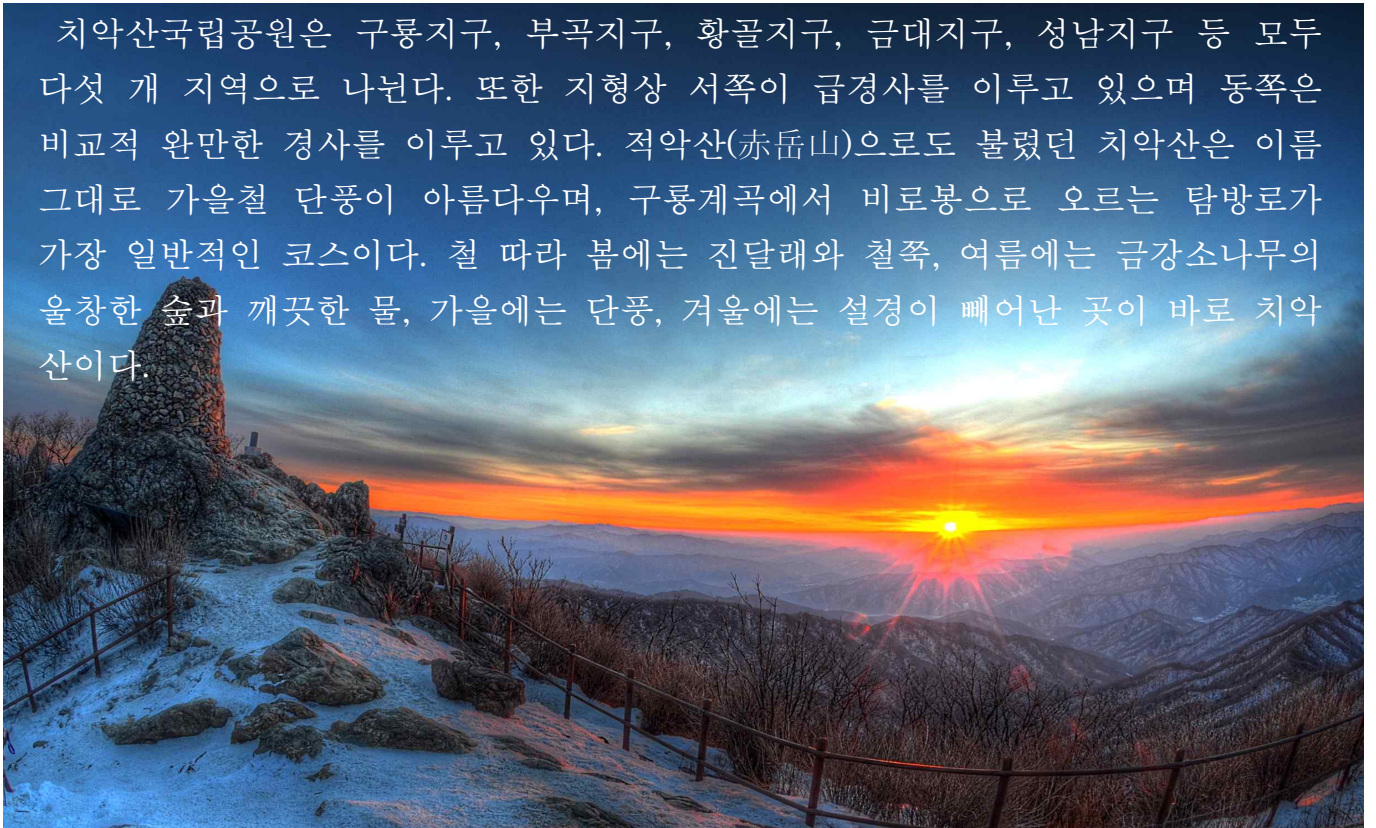
치악산(雉岳山)은 영서지방의 명산이며 원주의 진산(鎭山)이다. 예부터 ‘호국명산’으로도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제사인 소사(小祀)가 행해지던 곳으로 나라의 신앙처가 되었다.

치악산은 태백산맥의 허리에서 남쪽으로 내리닫는 차령산맥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유달리 지형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아 곳곳에 산성과 사찰, 유적지들이 널리 산재해 있으며 지명과 어울리는 많은 설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치악산은 주봉인 해발 1,28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서쪽은 원주시, 동쪽은 횡성군과 영월군에 접하고 있다. 남북으로 뻗어 내린 치악산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수레너미재를 지나 매화산(1,084m), 천지봉(1,086m), 서쪽으로는 토끼봉(887m), 투구봉(1,002m), 삼봉(1,072m), 그리고 남쪽으로는 향로봉(1,042m), 남대봉(1,181m), 시명봉(1,187m)까지 천미터급 고봉들이 연이어 솟구쳐 있어 ‘치악산맥’이라 불릴 정도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중 1984년 12월 31일 1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전체 면적은 175.668km²이다. 아주 맑은 날에는 북한산 백운대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이 치악산이며 서울에서는 직선거리가 약 100km 가량 떨어져 있어 수도권 일일관광이 가능하다. 또한 원주시내에 위치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교통망과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구룡지구, 부곡지구, 황골지구, 금대지구, 성남지구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뉜다. 또한 지형상 서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적악산(赤岳山)으로도 불렸던 치악산은 이름 그대로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우며, 구룡계곡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는 탐방로가 가장 일반적인 코스이다. 철 따라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금강소나무의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빼어난 곳이 바로 치악산이다.



II. 치약 8경

비로봉 미륵불탑 (치악8경 中 제1경)

치악산 비로봉에는 3기의 돌탑이 있습니다. 남쪽의 탑은 용왕탑, 중앙의 탑은 산신탑, 북쪽의 탑은 칠성탑이라고 합니다. 이 돌탑은 원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용창중(일명 용진수)이라는 사람이 꿈에 비로봉 정상에 3년 안에 3기의 돌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가 있어 혼자서 1962년 9월부터 1964년까지 5층으로된 돌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후 낙뢰로 인해 4차례 붕괴되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다가 2004년 치악산사무소에서 현재의 돌탑모형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비로봉



용왕탑(좌)과 산신탑(우)



보은의 전설이 깃든 상원사 (치악8경 中 제2경)

상원사는 치악산 남쪽 남대봉 중턱의 해발 1,100m의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설과 경순왕때 왕사였던 무착스님이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려 말 나옹스님에 의해 새롭게 지어졌으나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어 1968년 다시 지어진 후, 1988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중창하였습니다. 상원사는 “은혜 깊은 평”의 전설로 유명한 사찰로 원래 가을 단풍 빛이 아름다워 붉을 적(赤)자를 써 적악산이라 불렀는데 평의 보은설화로 인해 평 치(雉)자를 써서 치악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상원사 전경



상원사 범종



구룡사와 구룡계곡 (치악8경 中 제3경)

1,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구룡사는 풍수지리적으로 “천 년이 지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있고, 영험한 아홉 바다의 구룡을 풀어 놓은 형상을 한 천하의 승지” 라고 하여 서기 668년(신라 문무왕 8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구룡사(龜龍寺)는 대웅전 자리에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九龍寺)라 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사세가 기울어졌을 때 한 노인의 말을 듣고 거북바위 등에 구멍을 뚫은 이후에도 사세가 계속 쇠퇴하여, 거북바위의 혈을 다시 잇는다는 뜻에서 ‘거북 구’ 자를 쓴 구룡사(龜龍寺)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구룡사 전경



거북바위



식물의 보고 성황림 (치악8경 中 제4경) 천연기념물 제93호

성황림은 치악산의 성황신(城隍神)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서낭 숲입니다. 이 숲에 신이 산다고 믿어지는 곳으로, 이에 연유하여 마을 이름도 신림(神林)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치악산의 서낭신을 이곳에 모셔, 100여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이 숲을 보호해 왔습니다. 해마다 4월 8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데 이때 제주는 상을 당하지 않고 굿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성황림



성황제



사다리병창 (치악8경 中 제5경)

사다리병창은 구룡사 큰골에서 세렷폭포와 갈라지는 곳에서 시작되는 바위로 된 치악산의 주 등산로입니다. 바위 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운 것 같다고 하여 사다리병창이라고 불리며 ‘병창’은 영서 방언으로 ‘벼랑, 절벽’을 뜻합니다.

사다리병창



새로 조성된 사다리병창



호국의 성지 영원산성 (치악8경 中 제6경) 사적 제447호

영원산성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가 치악산 석남사를 근거로 여러 고을을 공여하였을 때 이용하였을 것으로 전해지며 신라 문무왕때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충렬왕 17년에 원나라의 합단적이 침입하였을 때 항공진사 원충갑이 원주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서 적들을 크게 물리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선조25년 임진왜란 때에는 김제갑 원주목사가 주민을 이끌고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곳으로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영원산성 전경



영원산성 석벽



태종대와 부곡계곡 (치악8경 中 제7경) 문화재자료 제16호

태종대(太宗臺)는 조선 태종과 운곡 원천석과 관계되는 유적으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조 태조의 왕가 형제간의 살육을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원천석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을 떠나 이곳 강림리에 은거하였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전 정사를 의논하고자 바위에서 기다리다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태종이 운곡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뒤에 이곳을 ‘태종대’라 하였으며 ‘주필대(駐蹕臺)’라는 비석을 세워 누각 안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주필대



기암괴석 입석대 (치악8경 中 제8경)

입석대는 높이 20m, 너비 5m의 네모꼴 입석이 높이 50m나 되는 받침돌 같은 바위무덤 절벽에 우뚝 서있는 기암괴석으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현기증이 날만큼 거대합니다. 치악 8경의 하나로 치악산국립공원의 명소이며 이 바위와 남쪽 50m 지점에 있는 신선대 사잇길로 들어가면 왼쪽에 입석사가 있습니다.

입석대



입석사



III. 지구별 주요 경관자원

- ① 구룡지구
- ② 행구·황골지구
- ③ 금대·성남·부곡지구

① 구룡지구

황장금표 (강원도 기념물 제30호)

황장금표란 황장목(黃腸木: 수백 년 묵은 껍질이 누렇게 된 소나무)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시대 만들어진 별채 금지 표시입니다. 조선시대 질 좋은 목재의 확보를 위해 황장목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썼는데, 치악산에는 질이 우수한 소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이 가까워 관리에 유리하고, 뗏목을 만들어 섬강과 남한강을 거쳐 서울로 운송하기에도 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전국 60개소 황장목 봉산(封山)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의 하나였습니다.

황장금표



황장의금표



구룡소

구룡소(九龍沼)는 구룡사 전설 속에 나오는 아홉 마리 용과 의상대사의 대결 속에 나오는 연못입니다. 대결에서 진 아홉 마리 용중 여덟 마리는 구룡사 앞산을 여덟 개로 쪼개놓으며 도망쳤지만 이 때 미처 도망하지 못한 눈먼 한 마리의 용은 이 연못에서 숨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세림폭포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가 계곡 가득히 넘쳐흐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구룡소



구룡소 다리



세럼폭포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얽혀있는 치악산 구룡사 계곡에 위치한 세럼폭포는 2단으로 휘어져 떨어지는 환상적인 물줄기가 일품입니다. 세럼폭포는 인근의 구룡폭포와 함께 치악산을 대표하는 곳으로 천지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럼폭포



겨울 세럼폭포



비로봉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진 차령산맥의 줄기인 원주의 명산 치악산 주봉인 비로봉(1,288m)을 중심으로 남으로 향로봉(1,043m), 북으로 매화산(1,084m), 삼봉(1,073m) 등의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남북으로 웅장한 산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치악산은 본래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이라 불렸을 만큼 단풍이 유명하며, 봄에는 신록이,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넓은 산하를 뒤덮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마치 나무들을 하얀 물감에 담갔다 놓아 가지 끝까지 눈을 담아 얼어붙은 상고대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며 훑날리는 모습은 추위를 잊게 만드는 황홀경입니다.

비로봉 전경



비로봉 정상표지석



천지봉

천지봉은 구룡사의 동남쪽에 있는 높이 1,086m의 봉우리입니다. 구룡사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큰 봉우리로 북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서 수레너미, 매화산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배너미재를 거쳐서 비로봉에 닿습니다.

천지봉(왼쪽봉우리)



천지봉정상



매화산

매화산은 한다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1,084m의 봉우리도 신선봉이라고도 합니다. 매화산은 꽤 높은 봉우리로 꼭대기에서 서남쪽으로 능선이 이어지다가 치악산 비로봉과 합쳐집니다. 매화산은 법정탐방로가 없는 연중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매화산(뒷쪽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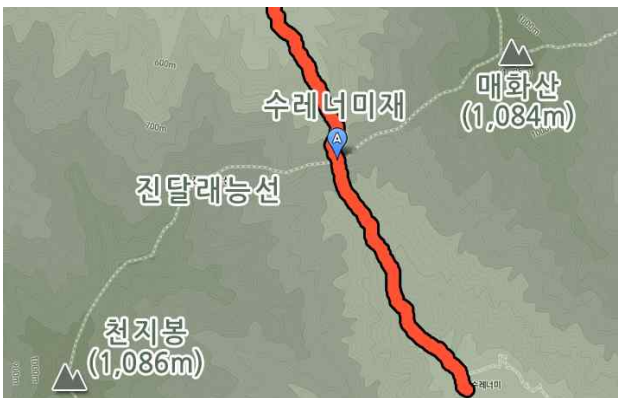
매화산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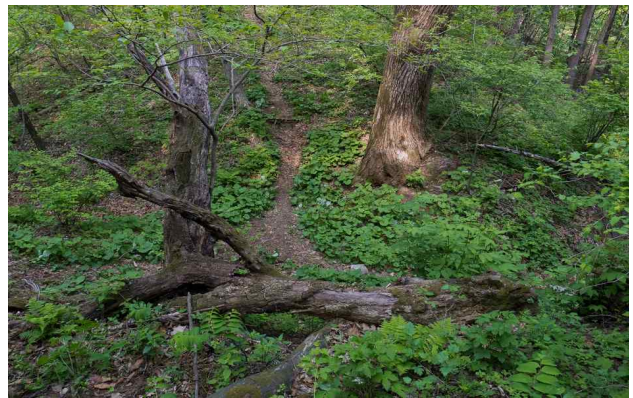
수레너미재

한다리에서 동남쪽 골짜기로 길게 이어지는 고개로서, 동쪽으로는 강림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매화산 능선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 치악산 천지봉과 연결된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찾아 강림으로 갈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하여 유래하였습니다.

수레너미재 위치도



수레너미재



배너미재

세림폭포에서 이어지는 배너미골로 연결된 고개를 말하며 ‘배너미재’라고도 합니다.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어 다녔다고 해서 유래하였습니다. 천지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비로봉에 닿고 남쪽으로는 강림면 부곡으로 이어져있습니다.

배너미재 위치도



비로봉에서 바라본 배너미재



② 행구·황골지구

입석사

입석사는 치악산 서남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고 신라시대에 의상대사가 이곳에 와서 수도하였다는 전설만 있습니다.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은 최근에 신축되었으며,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탑재를 일부 사용하여 복원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입석사



입석사 3층 석탑



홍양리마애불좌상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7호)

소초면 홍양리에 소재한 마애불좌상은 높이 1.7m의 석각으로 치악산 입석사(立石寺) 근처에 있는 입석대(立石臺)로부터 약 30m 떨어진 높이 3.3m의 암벽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마애불은 양호한 편인데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볼륨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풍만감이 있으나 비대한 느낌은 없고 최근에 마애불 좌측하단에 “元祐五年 庚午三月日(원우오년경오삼월일)” 이라는 명분이 발견되어 마애불의 조성연대가 1090년(선종7)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홍양리마애불좌상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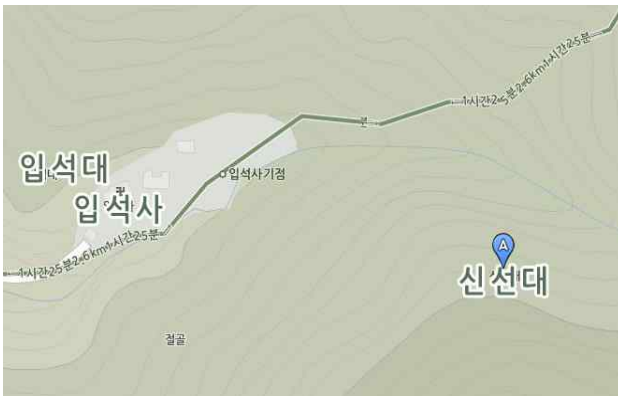
홍양리마애불좌상 근경



신선대

입석대 남쪽에 있는 높이 20여m의 바위를 말합니다. 치악산 산신령이 이 물을 즐겨 마셨다고 하여 해마다 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신선대 위치도



신선대



보문사

보문사는 국형사에서 동북쪽으로 향로봉의 서쪽 골짜기인 보문골에 있는 절입니다. 원래 보문사는 신라 경순왕 때 무착대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대웅전과 요사는 근래에 중건한 것으로 당시 희귀한 청석탑 부재가 출토되어 오래된 절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절 안에는 예부터 전해오던 보문암 창기(創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보문사를 옛날부터 보문연사(普門蓮社)라 했고, 또 보문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원주지역 주변 사찰인 국형사, 구룡사, 신륵사, 상왕사 등에서 시주한 금액이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문사



보문사 청석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103호)



동악단

치악산에는 예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산제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동국여지승람』 원주목조와 『세종실록』 권128 오례조를 보면 “치악산은 원주의 진산이다. 산정에는 보문당이라는 당이 있어서 춘추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 동악에는 조선 정종(定宗) 때 공주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려 동악산 신령의 가호에 의해 완치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후 왕명으로 이곳에 동악단을 쌓게 한 연후에 봄가을을 택하여 호국대제(護國大祭)를 봉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동악단



동악제



관음사

관음사는 곤은재공원지킴터로 가는 길 전에 위치해 있으며 창건시기는 1971년에 석호스님으로 인하여 창건하였고, 1992년에 2대 주지인 정오스님으로 후원으로 대웅전 및 종각,산신각 불사를 중건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염주라는 ‘통일 108 대염주’를 봉안할 관음전을 증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사 전경



통일 108 대염주



토끼봉

토끼봉은 삼봉과 투구봉 능선으로 투구봉 북쪽에 있는 높이 887m의 봉우리입니다.

토끼봉 위치도



토끼봉



투구봉

투구봉은 삼봉과 토끼봉 사이에 있는 높이 1,002m의 봉을 말합니다. 옛날 장군이 투구를 벗어놓고 쉬었다는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모양도 투구와 비슷합니다.

투구봉 위치도



투구봉



삼봉

삼봉은 쥐너미재에서 다시 북쪽으로 능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있는 봉우리입니다. 높이는 해발 1072m이며, 일제시대 때 치악산의 혈을 끊기 위해 이곳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삼봉 전경



삼봉 정상표지석



쥐너미재

옛날에 이곳에 범사(凡寺)라는 절이 있었다는데 쥐들이 너무 많아서 지내고 있는 스님들이 쥐 등살에 견디지 못 하고 절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많은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지어 범사를 떠나버렸는데 그 후로는 이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졌고 결국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쥐너미재에 조성해놓은 전망대에 오르면 날씨가 좋을 때에는 원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쥐너미재에서 바라본 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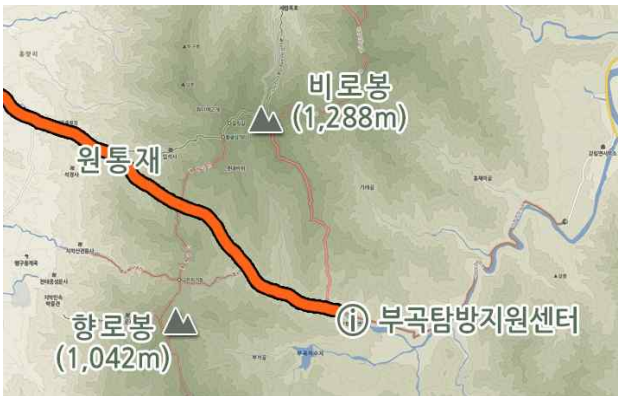
쥐너미재 전망대



원통재

황골과 부곡을 잇는 고개로 이방원이 조선조 3대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끝내 스승을 찾지 못하게 되어 이 고개를 넘으면서 ‘못 찾아 원통하다’ 고 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통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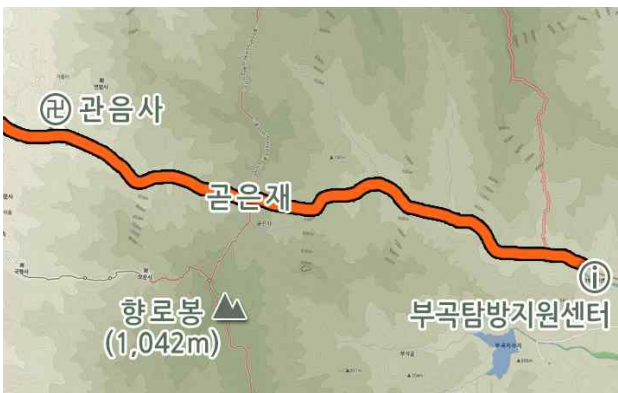
능선에서 바라본 원통재



곧은재

곧은재는 행구동 관음사 동쪽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고 합니다. 횡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이기도 하며 예전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든재 · 고둔치재 · 직치라고도 하며 지명의 유래는 고개가 쪽 곧았으므로 고든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곧은재



곧은재 이정표



③ 금대·성남·부곡지구

향로봉

높이 1,042m 인 향로봉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치악산의 한 봉우리를 이루며 치악산 주봉인 비로봉에서 남쪽으로 5km 지점에 솟아있습니다.

향로봉(주능선 중간)



향로봉 정상



영원사

영원사(永遠寺)는 남대봉 기슭에 위치한 사찰로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영원산성을 수호하기 위해 지은 절입니다. 오랫동안 폐사되었다가 1664년에 중건되면서 지금의 영원사(領願寺)로 바뀌었다고 전해지고, 1939년과 1967년에 당시 주지에 의해서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내에는 창건 당시의 유물은 없고, 근년에 신축된 건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영원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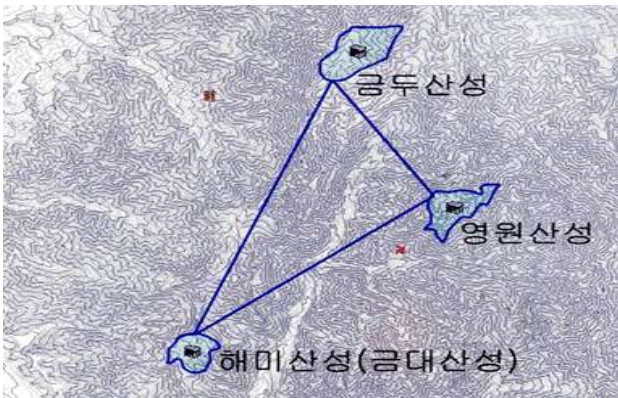
영원사 산신각



금두산성지

향로봉 남서쪽의 해발 1,000m되는 고지에서 부터 축조되었고 해미산성이나 영원산성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조시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고려·조선시대의 기록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통일신라 이전에 축조된 산성으로 판단되고 1942년도에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처음으로 ‘금후산성(金後山城)’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두고원’, ‘금두골’ 등의 명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두산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입니다.

금두산성지 위치도



금두산성지



해미산성지

금대분소 맞은편의 해발 627m에 쌓은 산성입니다. 이 산성에 대한 명칭은 가지각색이어서 금대산성, 해미산성, 금후산성, 하미산성 등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해미산성’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명칭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고 출처 또한 분명치 않은 상태입니다. 북문지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지대에서는 원주 시내를 관망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영원산성이나 금두산성과는 달리 제천과 원주를 잇는 도로로 이동하는 적을 상당히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미산성지 실측사진



해미산성지



아들바위

영원골 영원사 위에 있는 아들바위는 이 바위에서 득남하기를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의 얼굴을 닮았다고도 하며 세존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아들바위



아들바위 아래



가리파재

판부면 금대리와 신림면 금창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가리+파 → 가리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리'는 물, 물가, 분기를 뜻하는 '갈'에서 파생된 것으로 물가 마을에 많이 붙는 지명인데 산에서 쓰일 때는 산줄기가 갈린 목, 또는 고장을 가른 산에 주로 쓰입니다. '파'는 언덕, 고개를 뜻하므로 가리파는 산줄기가 갈린 고개나 언덕, 또는 고장이 갈라지는 곳이라는 뜻이므로, 원주와 신림을 가르는 고개라서 가리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매우 험한 고개였으나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고 직선화되어서 아주 험하지는 않습니다.

가리파재 위치



가리파재 표지석



성남리 석남사(石南寺) 터

절골의 경작지 일대로서 석축과 석재가 다수 발견되어 상당히 큰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절터에서 '석남O', 'O만', 'O대평', 'O남사' 등의 명문이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이곳이 '석남사지'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석남사는 궁예의 행적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늦어도 조선시대 초기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이 지역을 '성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석남사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석남사유적지비(앞)



석남사유적지비(뒤)



용마바위

용마바위는 상원사 남쪽 앞에 있는 높이 40m의 벼랑을 말합니다. 이 벼랑의 바위 끝에는 말발자국 형태로 패어진 자리와 사람의 손가락자국같이 패어진 곳이 있으며 그 밑으로는 갈색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발자국과 손 자리 그리고 갈색의 흔적이 있어서 바위 이름을 용마(龍馬)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용마바위



용마바위 전설의 흔적인 말발자국



변암

변암은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굴바위입니다.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300m 쯤 아래에 있는데 생긴 모습이 고깔처럼 생겼다고 하여 ‘ 변암 ’ 이라 불립니다. 바위 아래에는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옆에는 돌우물이 있어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천석 선생은 이곳에 온돌을 만들고 고사리와 나무 열매로 식사를 대신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변암 안쪽 벽면에는 “ 弁岩 ” 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 찾아오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변암



변암에 새겨져있는 문구



노구소

‘노고소’, ‘노호소’ 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원천석은 이것을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고, 노파는 태종이 찾아오자 원천석의 말대로 길을 반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이 곳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노구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파의 충정과 넋을 기리고자 2005년도에 노구소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사당을 건립하고, 강림면과 강림면 제례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10월 21일(양력)에 추모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노구소



노구사



IV. 치약산 깃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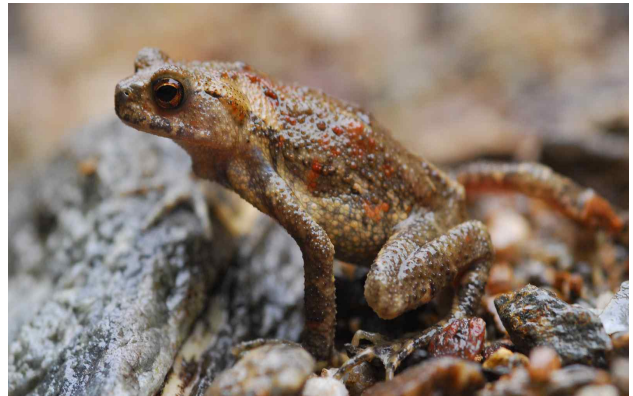
물두꺼비 (치악산국립공원 깃대종)

물두꺼비는 강원도 일부 산악지역 외에는 현재 개체수가 급감하는 종으로 치악산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생김새를 살펴보면 몸길이는 4~6.5cm정도이고, 두꺼비와 비슷하나 고막이 없습니다. 등의 피부가 오돌토돌하며 암컷은 적갈색, 수컷은 회갈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생태적 특징은 두꺼비에 비하여 물속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뒷다리 물갈퀴가 잘 발달되어 있고, 긴 염주알 모양의 알덩이를 물이 약하게 흐르는 바위 주변이나 수초에 감아 낳습니다. 주된 먹이는 곤충과 지렁이를 잡아먹고, 물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물두꺼비 한 쌍



물두꺼비 암컷



금강초롱꽃 (치악산국립공원 깃대종)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 중부 및 북부 이북의 고산지대 깊은 숲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국 고유종입니다. 금강산에서 발견된 청사초롱을 닮은 꽃이라 하여 금강초롱꽃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개화시기가 8~9월인 이 꽃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키는 30~90cm이고, 꽃은 종 모양으로 끝이 얇게 다섯 갈래로 갈라져 달립니다. 꽃 색은 연한 자주색이고 밑을 향해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쪽의 바위틈이나 계곡의 물이 많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초롱꽃



바위에 핀 금강초롱꽃

